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29호 | 발행인: 이영 | 발행일: 2014년 9월 10일 |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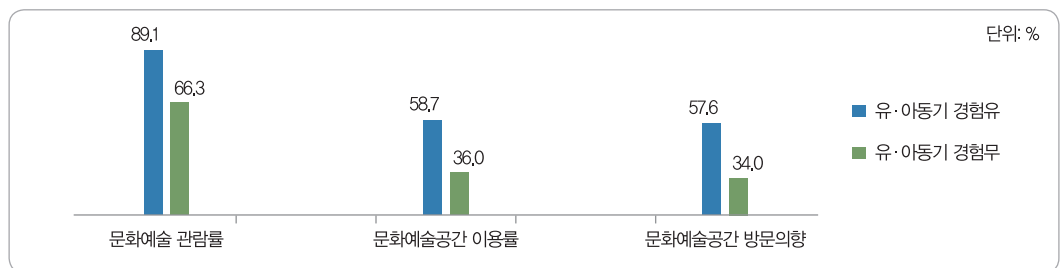
09 September

소득과 지역에 차별받지 않는 영유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I. 영유아기 문화예술 체험의 중요성

어렸을 때의 문화예술 경험 빈도,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은 전 생애에 걸쳐 이후 성인기의 문화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있음.
 - ▶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생애초기에 학습한 문화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문화활동의 내용과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자는 이후 문화예술 관람률이 약 90%에 달했던 반면, 비경험자는 관람률이 60%대로 낮았음.
 - ▶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도 유·아동기의 경험자는 58.7%가 이용했으나, 비경험자는 36.0%에 그쳤음.
 - ▶ 향후 문화예술 공간 방문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아동기 경험자의 57.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비경험자는 34.0%만이 방문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p. 40; 66; 74

[그림 1] 유·아동기 문화예술 경험유무별 성장 이후 문화예술 향유 정도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지속이론에 기반하여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문화참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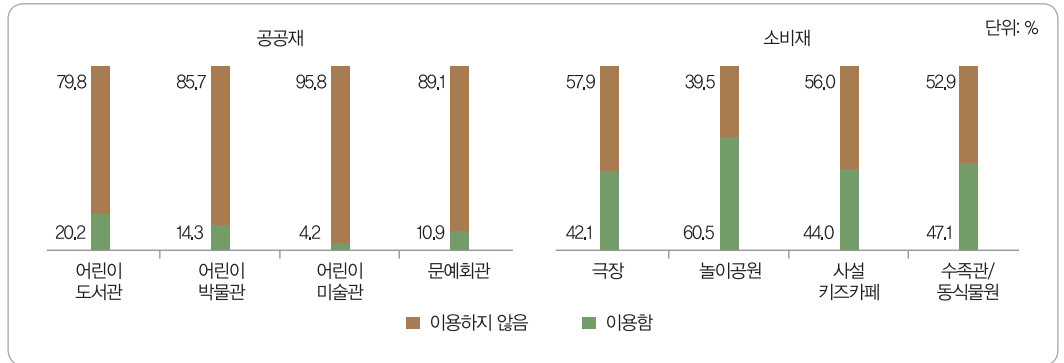
- '문화융성'은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서, 시민이면 누구나가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문화참여 확대 전략을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 문화향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공간을 향유하는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영유아기의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 현황 및 문화예술 시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본고는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함.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II. 영유아 문화예술 시설 이용의 현주소

지난 1년 동안 놀이공원, 수족관, 동식물원, 키즈카페 등의 소비재적 문화시설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공공재적 시설의 이용률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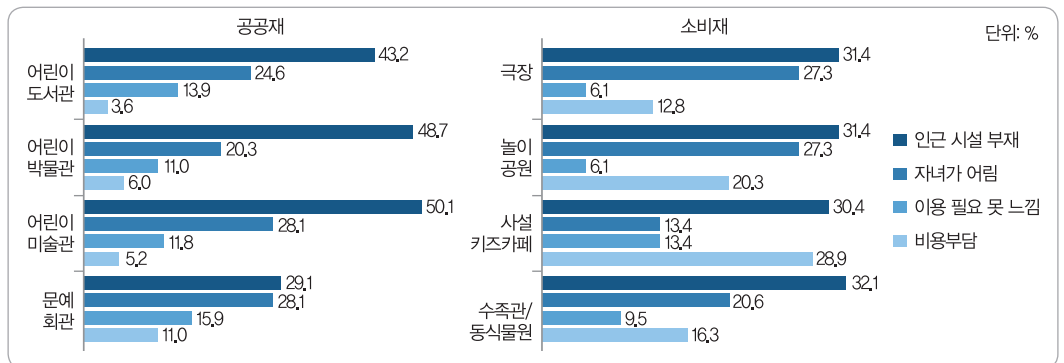
- 영유아의 문화예술 시설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를 보임.
 - ▶ 지난 1년 동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은¹⁾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용 문화예술 시설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어린이미술관이 4.2%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문예회관 10.9%, 어린이박물관 14.3%, 어린이도서관 20.2%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됨.
 - ▶ 이에 비해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 등 소비재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놀이공원은 60.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족관/동식물원 47.1%, 사설키즈카페 44.0%, 극장 42.1%로 공공재 시설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 지난 1년 간 영유아의 문화예술 시설 이용 실태

공공재와 소비재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임

-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근처에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녀가 어려서', '이용 필요를 못 느껴서', '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남.
 - ▶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보다 이용을 더 많이 하는 소비재 문화예술 시설의 미이용 이유로 '비용부담'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컨대, 공공재 시설 중 문예회관을 비용부담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11.0%로 가장 많았다면, 소비재 시설인 사설키즈카페는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28.9%로 약 2.6배 많음.



[그림 3] 지난 1년 간 영유아의 문화예술 시설 미이용 이유

1) 본고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시설을 공공재 문화시설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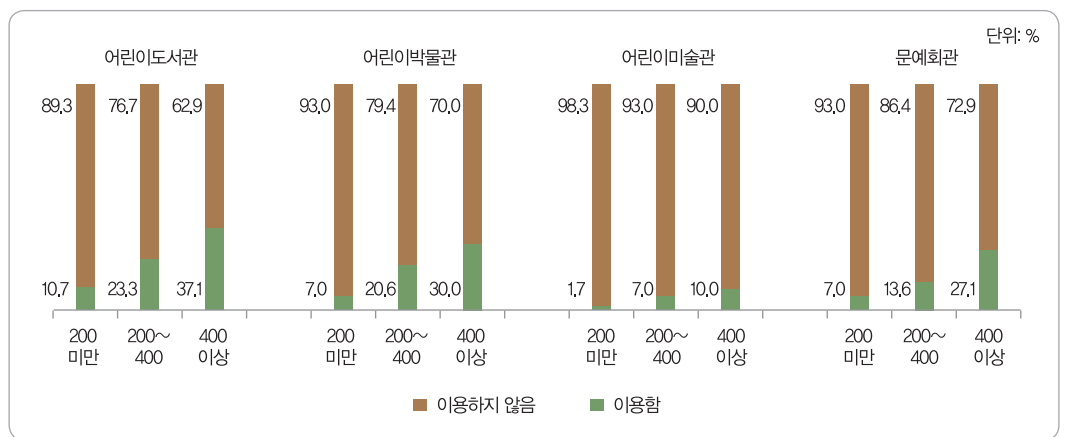
Ⅲ.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영유아기 문화예술 시설 이용 격차

● 가구소득별 영유아의 문화예술 시설 이용 격차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가구는 2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문화예술 시설 이용이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영유아가 어릴 때부터 소득에 따른 문화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영유아기의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함.
-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어린이 미술관을 이용한 사례가 약 1.7%에 불과한 반면 400만 원 이상 가구는 이들 가구에 비해 문화예술 시설 이용이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가구소득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 공간 체험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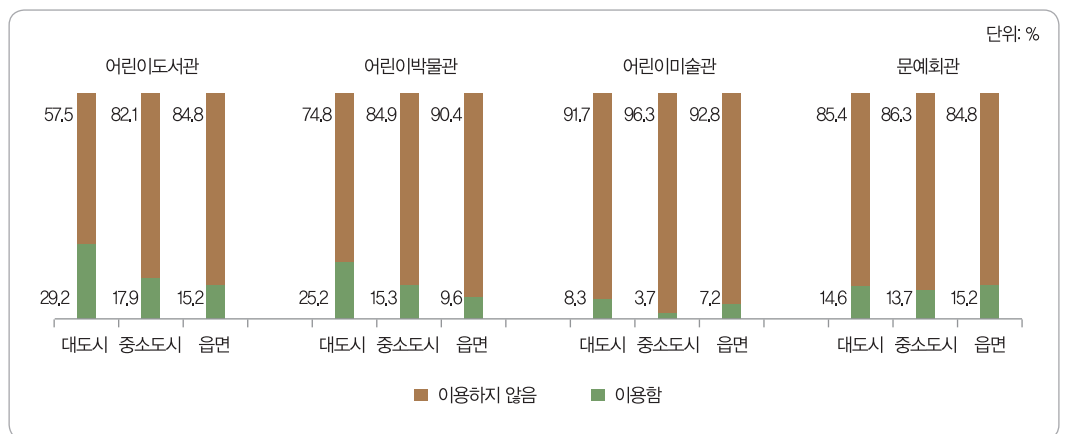


[그림 4]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 이용 현황

● 지역규모별 영유아의 문화예술 시설 이용 격차

지역규모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 이용률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영유아들에게서 높게 나타남

- ▶ 지역규모별로도 영유아의 어린이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영유아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며 이러한 이용 격차는 어린이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그림 5] 지역규모별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 이용 현황

IV. 영유아기 문화예술 시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정부는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확충,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야 함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방안으로는 영유아 단체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체관람 비용지원, 문화예술 시설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영유아들은 자신이 속한 가구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체험을 불평등하게 경험하면서 성장하므로 이러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어린이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 확충
 - ▶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박물관 같은 어린이 대상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함.
- 저소득 가구 영유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 ▶ 현재 소외계층에 지급하는 문화바우처는 가구단위 지원으로 한 가구당 1년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 현행 지원 수준은 가구 단위 이용에는 미흡하므로 영유아 자녀(초등학생 포함)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원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문화예술 소외 지역의 지원서비스 확대
 - ▶ 문화예술 인프라가 미비한 읍면지역 중심으로 ‘이동식’ 또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신청한 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 읍면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이동식’ 또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횟수를 확대함.
 - ▶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양질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함.
-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공공재 문화예술 공간체험 활성화
 - ▶ 대부분의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7시간 34분(서문희 외, 2012: 233)에 달하므로 이들 기관을 통해 영유아들이 문화예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문화예술 시설 방문 시 단체관람료를 지원하거나 영유아의 단체관람에 맞는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문화예술 시설 이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어린이집·유치원과 문화예술 시설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모색함.

이윤진 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p. 40; 66; 74.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33.
 • 이윤진·이정원·구지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